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 목차

---

- I. 들어가며
- II.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노동 운동과 파업
- III. 시진핑 시기 국가-노동관계의 변화
- IV.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 V. 나가며

## 〈국문초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편입은 중국의 노동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시기 도시의 단위 체제와 농촌의 집체농업은 해체되었으며 기존의 종신 고용 형태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가의 대응 사이에서 다양한 노동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험의 확대, 노동 NGO의 활동에 대한 부분적 허용 등 사회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졌다. 특히 2018년 광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에 저항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 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했던 대학생 활동가들

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제이식 사건(佳士事件)은 시진핑 시기 억압적으로 변화한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시진핑 시기 변화하는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 속에서 당국의 탄압에 맞선 기층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저항 양상에 초점을 맞춰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주제어 : 중국, 국가-노동관계, 노동운동, 노동 NGO, 제이식 사건(佳士事件)

## I. 들어가며

2017년 가을, 시진핑은 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자신의 집권 2기를 열며 새로운 지도 이데올로기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천명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던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인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와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을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새로 규정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경제 발전을 계속해나가면서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심화된 각종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기존의 지도자들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유독 시진핑 시기 들어 그와 같은 성향의 발언들의 빈도도 많아지고 뉘앙스도 강해졌다.<sup>1)</sup>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1) 시진핑 주석의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기념사를 살펴보면, 마오쩌둥이 5회, 덩샤오핑이 7회 언급된 반면, 마르크스는 12회나 언급되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원은 마르크스주의의 충성스러운 신봉자이자 확고한 실천자가 되어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 악착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관영 CCTV에서는 “마르크스는 옳다”는 교양 프로그램을 연일 방영하기도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청년시절을 다룬 애니메이션까지 준비했다. 심지어 마르크스의 고향인 독일 트리어 시에 높이 4미터에 달하는 청동상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념사와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의 내용은 전부 사라지고 공산당의 일당 통치에 대한 강조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야말로 위대하고 과학적인 사상이라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될 뿐이었다. 시진핑 사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급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회주의의 이상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라고 못 박았다.

한편, 당이 공식적으로 체제의 성격이 사회주의임을 강조하는 일이 강박적으로 벌어지는 와중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당국의 탄압의 강도도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 직면해 중국의 노동자들과 노동 운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헌법 1조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 체제의 주인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출현한 빈도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이 평균적으로 580여 회 정도였다면, 2016년에는 827회, 2017년에는 956회로 급증하고 있다(林非 2018).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2015년에 벌어졌던 광둥 지역의 노동NGO 탄압 사건과 2018년 제이식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노동 운동과 파업

개혁개방 40년은 사회주의 중국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탈집체화로 인해 농촌 개별 가구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의 중심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면서 농촌의 향진기업들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국내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게 되면서 많은 농민들은 이주 노동자가 되어서 농촌에서 도시의 산업 지대로 옮겨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수많은 업종에서 일하게 되었고 중국은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한편, 도시에서도 기존의 종신고용과 사회주의적 복지를 책임지고 있던 단위(單位)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시장화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었고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가 이뤄져 새롭게 노동시장에 따른 고용계약이 이뤄지는 노동계약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시기 형성되었던 농촌과 도시의 분할이라는 이원적 노동관계는 호구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속에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노동의 시장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재편되었고 노동자들은 시장경제 속에서 국가와 기업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나가야 했다.<sup>2)</sup>

중국 특유의 이원적 노동관계의 유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로

2) 중국 특유의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 속에서 이뤄진 자세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정규식 85-147 참조

이어지는 노동 수요의 양상에 대해서는 리칭관(Lee Ching Kwan)의 분석을 참조할 수 있다. 그녀는 비버리 실버(Beverly J. Silver)가 『노동의 힘』에서 제시했던 노동 수요의 두 양상, 플라니식의 노동수요와 마르크스식의 노동수요라는 개념들을 빌려와서 중국에 적용한다. 플라니식의 노동수요란 기존의 사회협약의 수혜대상자였던 노동계급이 시장화의 확산 등으로 그 지위가 깨져나가는 것에 벌여나가는 자기 보호의 성격을 띤 저항이고, 마르크스식의 노동수요란 시장 확산에 의해 창출된 신흥 노동계급이 형성해나가는 새로운 계급투쟁을 의미한다(실버 39-44).

리칭관은 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중국 동북지역의 구 국유기업 시대(중국의 Rustbelt)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下崗)당하는 노동자들이 벌였던 공장 점거, 시위에 플라니식 노동수요의 개념을 적용한다.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에서 당 관료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계층이 국유기업에서 일하던 노동계급이라 할 수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을 잃게 되거나 노동자 공동체의 토대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리칭관은 “절망으로부터의 투쟁”(Protest of Desperation)이라고 명명한다. 또 한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동남부 연해지역(주강 삼각주 및 장강 삼각주 등으로 중국의 Sunbelt)에서 나타난 젊은 농민공들의 임금인상이나 생활개선 등을 목표로 한 파업이나 쟁의 등에는 마르크스식 노동수요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입각한 행동주의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이를 “차별에 맞선 투쟁”(Protest against Discrimination)으로 명명한다(Lee Ching Kwan 8-13) 리칭관은 이 두 가지 노동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노동운동이 급진적 성격을 나타내기 보다는 지역화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일부 무관심한 “세포화된” 행동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린다(23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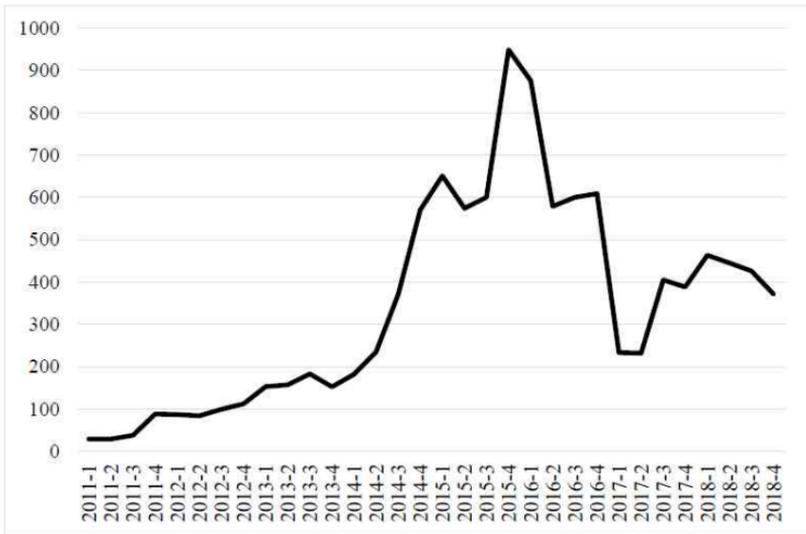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광둥 지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세대 젊은 농민공들의 파업과 저항은 점차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형성해나가며 보다 조직적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sup>3)</sup>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80허우, 90허우

세대인 2세대 농민공들은 기존의 중장년 1세대 농민공들이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노동자의 정체성이 강하고 귀촌보다는 도시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일부 농민공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존의 국유기업 노동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스스로를 ‘신노동자(新工人)’라고 호명하기 시작했다(뤼투 2017). 이런 측면에서 2010년 광둥성의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재조직 등을 요구하며 벌어졌던 난하이혼다(南海本田) 파업은 신노동자들이 그동안의 ‘계급실어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sup>4)</sup> 2010년 이후로 난하이혼다 파업의 영향을 받아 5월에서 7월까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의 물결이 이어졌으며, 2014년 4월에는 역시 광둥성의 둥관(東莞)의 신발 제조업체인 위위안(裕元)에서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인원인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sup>5)</sup> 위위안 파업도 난하이혼다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다시 한 번 연쇄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파업들은 기존의 파업들과는 달리 체불 임금 보상, 임금 인상은 물론 사회보장금 연체나 미납에 대한 보상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에서 점차 노동자들의 계급적 역량이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내주었고, 집단적인 노동쟁의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영석, 백승욱 232-34).

3) 장운미는 2000년대 들어 성장한 중국의 노동자 단체행동을 체제 내의 ‘군체성 시간이나 시민권 획득을 위한 ‘권리보호 투쟁’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모어진 힘을 바탕으로 사회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운동’이라고 파악한다(장운미 2015, 147-49)

4) 2010년 난하이혼다 파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장영석 2011 참조

5) 위위안(裕元, Yue Yuan)은 단순한 신발 제조 하청업체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를 비롯해 세계 유명 신발 브랜드의 운동화를 생산하며, 2006년에 이미 나이키 전체 신발의 30%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위위안이 신발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홍호평 2012의 4장 「대중화권의 거대 하청업체」 참조.



<그림 1> 2011-2018년 중국의 파업 발생 건수

출처: China Labour Bulletin. *Strike map*. 2019.

<<https://maps.clb.org.hk/en>>; Burak Gürel, Mina Kozluca.(2019: 211)에서 재인용

2010년대 이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과 노동저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소요 가운데 노동소요가 40% 이상이며, 사회 소요에 참여하는 사회 집단 중에서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로 중국에서 노동 파업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왔다. 홍콩에 기반을 둔 노동 NGO인 중국노동회보(China Labour Bulletin)는 중국 대륙의 노동 운동과 파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그 추이와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위 <표 1>에서와 같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업 건수를 보면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해왔다. 2011년 기록된 파업 수가 184 건인데 2015년에는 연간 파업수가 총 2,774 건에 이를 정도로 정점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664 건과 1,258 건으로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8년에는 1,705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업의 60% 이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개인 기업에서 63.4%, 국유기업에서

11.6%를 차지했다(China Labour Bulletin 2019).

이렇듯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대 들어 파업과 노동쟁의가 일상화되고 노동자 저항이 기존의 권리보호의 성격에서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익 추구형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젊은 농민공들이 계급의식을 형성하며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장영석, 백승욱 233-34). 중국 당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노동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III. 시진핑 시기 국가-노동관계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여 그 체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해왔지만,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관계들이 해체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안정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서상민 54). 이에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인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사회건설'과 '사회관리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sup>6)</sup> 중국의 사회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노동 부문의 문제였다.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들의 대량 출현, 노동자들의 집단 저항의 증가, 기존의 관리 조직이었던 공식적인 노동조합인 공회(工會) 외부에서의 집단 저항 조직,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NGO의 출현 등은 당-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관계와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백승욱, 장영석, 조문영, 김판수 16-24).

जू드 하웰(Jude Howell)과 팀 프링글(Tim Pringle)은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노동 관계 유형을 그 특성에 맞춰 분류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국의 국가-노동관계가

6) 200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이 사회건설과 사회관리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게 된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는 백승욱, 장영석, 조문영, 김판수 2015: 7-16 참조.

후진타오 시기에서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그들은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노동관계의 유형을 ①산업 부분에서의 갈등 조정, ②노동의 조직화 양상, ③국가의 노동 정책과 입법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관계의 특성을 착취형(exploitative), 보호형(protective), 개방형(open), 포섭형(encapsulating)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노동관계 유형

	갈등 조정	노동 조직화	노동 정책
착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갈등 중재에 억압적인 접근을 채택</li> <li>- 노동조합은 국가 이익만을 대변</li> <li>- 노동자들의 시위나 파업은 자발적이나 서로 협조적이지는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조직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음</li> <li>- 국가에 종속된 노동조합은 복지를 분배하고 노동규율을 부과하는 역할</li> <li>- 노동 NGO 및 독립노조가 발전할 여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정책은 고용주의 입장에 우호적</li> <li>- 법과 규제는 노동 조직화를 금지함</li> </ul>
보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제한을 두고 자본을 규율함</li> <li>-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함</li> <li>- 노동자들의 시위는 권리 주장을 위해 법을 인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법규를 통해 법 테두리 안의 행동주의를 위한 공간이 생김</li> <li>-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등장</li> <li>- 노동자들이 법 체계 속에서 법률을 통해 권리를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됨</li> <li>- 노동 조직화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지속됨</li> </ul>
개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행위자들의 개입이 허용되어 단체협상과 대화 등이 가능해짐</li> <li>- 민간 행위자들에 대한 조건부 개입과 억압</li> <li>- 노동자들이 시위에 대한 정보 전략,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음</li> <li>- 노동NGO들이 진보적인 노동운동가들이나 지방정부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들의 협력을 동반한 노동NGO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사회가 성장</li> <li>- 노동NGO들이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지도, 파업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과 중재가 가능한 정책과 법규 도입</li> <li>- 노동자와 노동NGO들이 정책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li> <li>-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완화시킴</li> </ul>
포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갈등 조정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협상은 제한적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NGO와 진보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은 제약됨</li> <li>- 노동 조직화와 갈등 해결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과 혁신은 제한되고 노동조직화에 우호적인 정책 도입 중지</li> </ul>

<p>- 노동조합은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능은 합</p>	<p>위한 실험과 혁신은 제한됨 - 국가는 자율적인 조직화를 탄압하고 자신이 변화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p>	<p>- 노동NGO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p>
--	---	---------------------------------

출처: Jude Howell, Tim Pringle. 226-3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하웰과 프랑글의 분석에 따르면 후진타오 시기는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노동관계에서 개방형에 해당한다. 노동 조직의 발전 기회와 그 행동의 영향력도 생겨났다.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같은 노동관계에서의 법적, 제도적 조치들은 고용주와 지방 정부 당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도 성장하면서 노동NGO들도 조심스레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 영역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233-37). 반면, 시진핑 시기에는 포섭형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개혁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개혁 조치들을 당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며 시민 사회의 개입은 여러 제약을 받는다. 후진타오 시기 입법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적 조치들은 시진핑 시기에 폐지되지는 않고 노동NGO들의 활동도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나 시위 같은 노동자들의 행동주의도 지속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당의 규율이 강해진다. 이와 같이 두 시기의 권위주의적 국가노동관계의 구체적인 특성과 양상들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국가노동관계 비교

	후진타오 시기(개방형)	시진핑 시기(포섭형)
갈등 조정	<p>- 실험과 혁신에 있어 실용적, 외향적 접근: 기층 노조 선거, 중재 위원회, 단체협상에서 노조 대표자 개입 등 -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일반적 관심</p>	<p>- 노동자들의 소요와 파업이 지속되지만 국가는 단체협상과 정책실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함 -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지속 - 노동NGO의 파업과 협상에서의 개입에 대하여 탄압함 - 당 주도의 노동조합의 역할 강조</p>
노동 조직화	<p>-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원화로 노동NGO, 활동가들의 법률 지원 등의 활동 공간이</p>	<p>-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표체로서 국가노동조합의 역할 강조,</p>

	<p>생김, 지방정부가 노동NGO를 탄압하기도 하지만 법률 교육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노동NGO 이용</li> <li>- 진보적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지방 관료들이 지식인, 노동NGO 활동가, 변호사 등과 유대 관계를 형성</li> <li>- 기층 노동 조직가들과 연대 파업 등이 출현</li> </ul>	<p>국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유희책으로 조심스런 노동조합 개혁을 장려하며 개혁 과정에 대한 국가의 포섭 조치들에 대해 신뢰를 제공하려 함, 개혁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작업장을 대표하려는 것에 제한이 가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적인 노동조합 지도자, 지방 관료, 노동 활동가들의 연대가 약화됨</li> <li>- 노동NGO와 변호사, 활동가들을 탄압함, 노동NGO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교육 서비스의 하청이 이뤄짐, NGO 활동을 제한하고 포섭하기 위해 NGO 내부에 당조를 조직함, 노동NGO와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고히 함</li> </ul>
<p>노동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농민공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률과 정책이 확대됨</li> <li>- 노동조합이 농민공들에게 가입 조건을 개방하고 기층 노동조합에서 대표자 선거 시행, 작업장 중재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정책에 대하여 미세 조정만 하고 새로운 노동법은 제정하지 않음</li> <li>- 허가받은 노동NGO에게만 하청을 줌</li> <li>- 노동NGO가 해외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NGO법을 제정</li> </ul>

출처: Jude Howell, Tim Pringle 231에서 재인용

부연하자면,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의 국가-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관리의 방식을 비교하자면, 사회의 안정유지(維穩)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시장화와 상품화로 많은 타격을 입은 사회에 대한 보호적 조치들이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라는 슬로건 속에서 행해졌다. 대중들의 불만 속에서 여러 탄원이나 군체성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자 인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협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 들어서는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관련해 치안과 관련한 공안 기구들의 힘을 늘리고 이에 대한 당의 통제 역시 강화했다(서상민 58-61). 시진핑 시기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안 부문에 더 무게를 두는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층에서 체제의 내부와 외부의 선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활동 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가던 노동NGO에 대한 탄압이 거세졌다.

#### IV.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2장에서 살펴봤듯이 2010년대 들어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파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작업장에서 점차 각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역량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자생적 노동NGO와 활동가들의 성장도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의 유일한 공식적인 노동조합인 공회는 후진타오 시기 들어 노동자들을 대변하려고 여러 제도적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주의 속에서 국가를 위해 노동자를 생산에 동원해야 하는 국가 기구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백승욱, 조문영, 장영석 41-42). 이런 가운데 체제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집단 쟁의에 여러 형태로 큰 도움을 주는 풀뿌리 노동NGO들은 지역에서 점차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난 노동NGO들은 그 성향에 따라 서비스지향형 노동NGO와 운동지향형 노동NGO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지향형 노동NGO들은 농민공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돌봄 지원, 산업 재해나 임금 채불 등에 대한 법적 조언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은 보기에 따라 국가가 누락하고 있는 공공재 제공에 대한 보충 역할이기도 했다. 반면에 점차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과 계급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노동운동과 파업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기존에 기업에 존재하던 공식적인 공회는 그 폭발적인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점차 보다 운동지향적인 노동NGO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운동지향적 노동NGO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NGO들이 중산층 엘리트 출신들이 이끄는 경우가 많다면, 운동지향적 노동NGO들은 고용주들과의 분쟁 속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당했던 노동자 출신의 리더나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뛰어난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운동의 외연을 넓혀나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Feng Chen, Xuehui Yang 157-58). 이런 노동NGO 활동가

들의 역할은 다큐멘터리인 <凶年之畔>(We the Workers)에 잘 나타난다.<sup>7)</sup> 그 영화 속에서 선전의 노동운동 지원단체인 춘풍(春風)을 이끄는 장즈루(張治儒)<sup>8)</sup>가 후난 출신의 한 농민공과 다음날 있을 쟁의 결의대회에서 할 연설을 다듬는 장면이 나온다. 그 농민공이 연습하던 연설의 일부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중국 방방곡곡에서 이곳 선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됐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왔죠...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는 나라의 정책이고 제도입니다. 때때로 어떤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깨어있는 노동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 일어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아니면 시원하게 울음을 한바탕 터뜨리십시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동료들이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동료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그를 다시 한 번 포옹해 주세요. 고개 들고 일어섭시다. 우리에게 실패란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당신이 고작 돈 몇 푼만 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해 잡들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 평생 개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7) <흉년지반>은 사회파 다큐멘터리 감독인 황원하이(黃文海)가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촬영한 작품으로 중국 광둥 지역의 노동NGO 활동가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8) 장즈루는 후난 출신으로 1993년 19살에 광둥 동관에서 농민공 생활을 시작해 1995년부터 여러 외자기업에서 노조를 만드려는 시도를 하다 동료 노동자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2004년부터 노동NGO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 춘평 노동분쟁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이후 광둥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주요 활동가이다 (Feng Chen, Xuehui Yang 160).

이 연설에서도 전적으로 잘 나타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정치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정치화 경향과 급증하는 파업은 바로 당국의 거센 탄압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장 많았던 2015년 12월 3일 공안 당국은 광둥 지역 노동 NGO에 대한 침탈과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적어도 4개의 노동단체가 표적이 되었는데 25명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구금, 심문을 받았으며 그 중 7명이 구류상태에 있거나 접견이 금지된 상태였다. 여기엔 판위(番禺) 노동자 센터의 책임자인 쩡페이양과 상근자인 주샤오메이(朱小梅), 포산 난페이엔(南飛鵬)의 사회복지서비스 센터 책임자인 허샤오보(何曉波), 그리고 노동인권활동가인 평자용(彭家勇), 멩한(孟翰), 탕젠(湯建)이 포함되어 있었다.<sup>9)</sup> 물론 이 활동가들이 평소에도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지방정부의 공안 조직들이 그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했고 때때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억압이 가해지기도 했지만 중앙 당국에 의한 대대적인 검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2일 중국 당국은 신화사와 CCTV 뉴스를 통해 '노동 운동 스타의 진실'이라는 장문의 기사로 당시 판위 노동자 센터의 주요 지도자였던 쩡페이양에 대한 마타도어를 보도했다. 그 내용은 쩡페이양이라는 활동가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광둥 지역의 각종 파업을 유도하는 등 국내 안전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으며, 공금을 유용했고, 변호사를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경력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탄압받던 노동NGO를 지지하던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당국의 행위를 1920년대에 군벌정부가 막 태동하기 시작한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탄압했던 것에 비유하며 조롱하기도 했으며 다음 <그림 2>와 같은 내용을 SNS 상에서

9) 2015년 12월에 벌어진 광둥지역 노동NGO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과 관련하여는 당시 소식을 알리고 그들의 석방 등 탄원을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Free Chinese Labour Activists Now*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공유했다. 그 내용은 1922년 9월의 민국일보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군벌정부가 마오쩌둥을 비롯한 초기의 당 활동가들을 잡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이전에 우리가 소나 말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되자는 구호로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외부의 자금을 받아서 비합법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분규를 조장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산당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공산당에 빗대어 풍자하는 동시에 이 체제의 성격을 폭로했다.

《民国日报》1922年9月14日：湖南省警察厅通报，根据萍乡县群众举报，安源路矿近日打掉一个以“从前是牛马、现在做人”为口号煽动工人、长期接受境外资助、在境内插手劳资纠纷、严重扰乱社会秩序的非法组织，抓获李某三、毛某东、刘某奇等7名嫌犯。李某三煽动工人罢工，成立所谓的“工人俱乐部”，对我国模范企业汉冶萍公司的平稳运行和有序发展造成了严重的冲击。

由锤子便笺发送 via Smartisan Notes

<그림 2> 1922년 민국일보 기사를 통한 노동 탄압 풍자

출처: 중국 SNS에서 필자가 수집

한편, 해외의 여러 인권단체와 중국 노동 연구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한 구명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성명서에는 ①억류되어 있는 노동인권활동가들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석방 ②노동인권활동가, 노동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억압 중지 ③중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 등을 주로 요구하며 세계 각국의 177개의 노동 단체가 연대 서명했다.<sup>10)</sup> 하지만 이런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잡혀간 노동NGO활동가들은 바로 풀려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역에서의 활동은 큰 타격을 입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sup>11)</sup>

한편, 2018년에 제이식(Jasic Technology, 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이라는 기업에서 노조를 세우려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이에 연대하던 대학생 활동가들이 당국에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한다.<sup>12)</sup>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자면,<sup>13)</sup> 제이식의 선전 공장에서 평소 휴식 시간에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제 구보, 폭언, 구타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계속되었고, 이에 항의했던 노동자 위권총(余浚聰)이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이식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려고 지역의 공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리어 제이식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지역의 상급 공회도 급진적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꺼리며 처음 저항했던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사측의 어용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역 경찰들은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연행해간다. 상황에 절망한 노동자들은 지역 파출소 앞에서 이들을 석방하라는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진압당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

10) 당시 연대서명서와 참여단체들은 페이스북의 관련 웹페이지인 *Free Chinese labour activists now* 馬上釋放中國勞權人士 <<https://www.facebook.com/freechineselabouractivis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다큐멘터리 <흥년지반>을 연출한 황원하이 감독은 당시 상황에서 활동가들에게 “중국 노동자 운동의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비관적인 얘기를 듣기도 했다.

12) 제이식(Jasic Technology, 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은 용접산업 전반에 있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선전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며, 중국에서도 선전, 충칭, 청두 등에 공장이 있다.

13) 제이식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제이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연대 웹페이지인 *Global Support for Disappeared Left Activists in China*를 비롯해 장운미(2018), 천슈웨이(2018), 하남석(2019a, 2019b), 홍명교(2019), Labor Notes(2018), 懷火(2019) 등을 참조.

로 찍은 영상에 억울한 사연들을 실어 중국의 SNS 상에 올리자 이에 호응하여 연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단순히 온라인 상의 탄원서 발표나 연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제이식노동자지원단(佳士工人聲援團)'을 조직하여 직접 현장에 내려와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대, 런민대, 난징대, 우한대에서 마르크스주의학회를 만들어 중국의 불평등과 사회문제와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이었다.<sup>14)</sup> 이들은 8월에 선전에 내려와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려내는 연대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에게 맞닥뜨린 것은 당국의 개선이나 협조가 아니라 강력한 탄압이었다. 8월 24일 이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로 경찰이 침탈해 이들은 전부 연행되었고 일부는 석방되었지만 주도했던 인물들은 2020년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당국에 억류되어 이는 상황이다.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황이 진압되고 학교로 돌아간 가을 개강 이후 이들이 참여하던 학회와 동아리들이 전부 등록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이들을 대신하는 어용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를 만들기까지 했다. 탄압은 계속 이어져서 11월에서 12월에 이르는 동안 약 20여 명의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중국 각지에서 연행되었고 이 상황은 몇 달 째 이어져서 5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연행되어 있는 상황이며, 202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엄혹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sup>15)</sup>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내외의 여러 연대활동이 이어져 연대 성명서나 탄원서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역시

14)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주의를 학습하는 동아리들이 생겨난 배경에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이데올로기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있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로 학생들 스스로가 그 사회적 모순을 직접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장운미 2018, 78-82). 한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으로 열렸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계급계층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가진 청년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필자 역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탄압받는 소식들과 연대의 메시지들을 공유해왔다. 이들은 온라인 상의 검열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23일마다 기존 아이디를 폐지하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9년 2월부터는 이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당국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의 사회 통제에는 개선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주인인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국가가 탄압하고 사회주의를 학습하던 학생들을 연행하는 모순되고 환멸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림 3> 중국 체제 성격에 대한 온라인 풍자

출처: 중국 SNS를 통해 필자가 수집

이렇듯 사회주의 없는 사회주의, 마르크스 없는 마르크스주의를 풍자하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록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의 중국어 표현이 ‘馬克思’라는 것을 이용해 지금 상황이 사슴을 말이라고 했던, 즉 남을 속이려고 진실과 거짓을 바꿔치기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빗대어 풍자하는 표현이다. 중국 노동자와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활동을 지지했던 이들은 위 <그림 3>처럼 개혁개방 40주년을 록르크스 탄신 40주년에 빗대어 풍자하는 내용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조직하려 했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어용노조를 만들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던 각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는 폐쇄하고 어용 동아리를 만들어버린 중국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이런 풍자를 불러오고 있다. 즉, 인민들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의심하고 다시 질문하는 중이다.

## V. 나가며

제이식 사건과 중국의 노동운동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여러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된다. 보수 매체들은 이 사건을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매우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반공주의적 시각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도한다. 진보적 매체들은 연대활동에 나섰던 중국의 대학생들이 『전태일 평전』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등을 읽으며,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학연대 경험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많이 부각시켰다. 두 경향 모두 일정하게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곡절을 거친 중국의 현대사와 개혁개방 이후 현재 복잡하게 형성되어 가는 사회 조직 및 사상 경향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 사태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제이식 노동자들과 연대활동에 나섰던 학생들은 반체제 인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일부 서구의 언론보도에서는 이들의 투쟁을 기존에 존재했던 자유주의적 성향의 반체제 인사들과 연결시키기도 했지만 이들 사이에는 당국의 강력한 탄압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중국이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서구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존 반체제 인사들의 입장이지만 제이식 활동가들은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그 체제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도리어 자본가의 편을 들어 탄압에 나서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혁명 역사와 공산당의 지배적 통치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여전히 마오쩌둥주의이며, 자신들의 투쟁을 현재 체제 속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당국이 자신들이 '불법적 조작을 결성했고 서구의 NGO들로부터 불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딱지를 붙이는 것에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노학연대에 나섰던 학생 활동가들이 한국의 사회운동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며 권위주의적인 발전 모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착취당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발전 경로와 흡사한 측면이 많다. 그렇기에 이들이 농촌 출신 여공들에게 헌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삶과 사상에 감동받고, 노동 현장에 진출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낸 한국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한국의 사회운동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반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이들의 운동은 그렇지 않다. 당국이 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길을 가는 지에 대한 비판이지 정권을 타도하지는 논리로는 가지 않는다.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혁명적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는 당국의 반성과 성찰이다. 심지어 베이징대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를 이끌었던 웨신(岳昕)은 시진핑의 청년 시절 농촌 하방 경험이 자신을 감동시켰으며, 현재의 연대 활동이 외부의 사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5.4 운동과 혁명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얘기하기도 했다(장윤미 2018, 80).

그렇기에 근대화론에 입각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민주주의 요구라는 기존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경로 의존은 물론이고 “자본이 가는 곳에 갈등이 따라 간다”는 기본적인 자본과 노동의 동학 논리에 의존해 중국의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한편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단속적으로 일어났던 사회운동의

맥락이다. 1957년 반우파 투쟁 당시 우파로 몰려 고초를 겪었던 중국의 이단적 사회주의 전통은 물론이고, 문화대혁명 당시 조반의 경험과 1989년 천안문 사건 때 자신들을 ‘애국적 사회주의자로 칭했던 학생운동의 사례 등의 연속선상에서 지금의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의 수용 속에서 전개되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보편적 모순에 더불어 현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기층으로부터의 저항 운동이라는 중국적 혁명 전통이 착종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분기점에 서있음이 분명하다. 시진핑 체제는 이를 ‘신시대라고 명명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부정부패, 생태 위기, 부채 증가, 경제성장 둔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갈등 등 여러 산적한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당으로 일원화된 강력한 권력 집중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 중앙은 다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조하고 강력한 이데올로기 단속에 나섰다. 기층에서는 조금씩 그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주의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대사 속에서 몇 번이나 갈등을 반복했던 권력 유지를 위한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해방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다시 한 번 충돌을 시작했다. 중국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다시 어려운 길에 나선 것이다. 제이식 공장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행동에 나선던 노동자 중의 한 명인 후난 출신의 미지우핑(米久平)은 “항상 누군가는 앞서 가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자유의 날을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Yuan Yang 2019에서 재인용). 이는 너무나 잘 알려진 루쉰의 오래된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희망은 땅 위에 난 길과 같아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뤼투(呂途).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정규식, 연광석, 정성조, 박다짐 옮김. 서울: 나람북스, 2017.
- 백승욱, 장영석, 조문영, 김관수. 「시진핑 시대 중국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현대중국 연구』. 제19집 2호 (2015): 1-51.
- 백승욱, 조문영, 장영석. 「사회로 확장되는 중국 공회(노동조합): 광둥성 공회의 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1집 제1호 (2017): 39-89.
- 비버리 J. 실버.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백승욱, 안정옥, 윤상우 옮김. 서울: 그린비, 2005.
- 서상민. 「중국의 강대국화와 시진핑 시기 사회관리」. 『중국지식네트워크』. 10권 (2017): 45-81.
- 장영석. 「난하이혼다 파업과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 (2011): 173-197.
- 장영석, 백승욱.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권 2호 (2017): 231-76.
- 장윤미. 「2천년대 이후 파업사례로 본 중국 노동자 운동의 쟁점과 의미」.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8호 (2015): 144-78.
- 장윤미. 「중국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경험 및 기억의 전승: 노동자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향하여」. 『중국사회과학논총』. 제1권 제1호 (2018): 62-92.
- 정규식. 『노동으로 보는 중국』. 서울: 나람북스, 2019.
- 천슈웨이. 「제이식 노동자들의 공회 건설 투쟁과 ‘좌익 학생운동」. 『오늘보다』 2018 <<http://todayboda.net/article/7677>>.
- 하남석. 「2019년 중국 정치사회 전망」. 『동서중국 웹진』 2019 Vol 4. (2019a) <<http://dsuchina.kr/user/0004/nd48750.do?menuCode=kor&zineInfoNo=0004&pubYear=2019&pubMonth=01>>.
- 하남석. 「제이식 사건을 통해 본 중국의 사회운동 문제」. 『워커스 WORKERS』 52호 (2019b) <<http://workers-zine.net/30206>>.

- 홍명교. 「중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현 시기 중국 노동자운동의 조건과 전망」. 『진보평론』 제81호 (2019): 171-95.
- 홍호평 외.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하남석, 김현석, 이홍규, 장윤미 옮김. 서울: 미지북스, 2012.
- China Labour Bulletin. *Strike map*. 2019  
 <<https://maps.clb.org.hk/en>>.
- China Labour Bulletin. “The State of Labour Relations in China, 2018.” *China Labour Bulletin*. 9. Jan. 2019  
 <<https://clb.org.hk/content/state-labour-relations-china-2018>>.
- Gürel, Burak and Mina Kozluca. “The Unrest and Relative Empowerment of the Working Class in Contemporary China.” *METU Studies in Development* 46 (2019): 203-26.
- Hui, Elaine and Eli Friedman. “The Communist Party vs. China’s Labor Laws.” *Jacobin*. Oct. 2018  
 <<https://jacobinmag.com/2018/10/china-communist-party-labor-law-jasic>>.
- Freidman, Eli. “China in Revolt.” *Jacobin*. Aug. 2012  
 <<https://jacobinmag.com/2012/08/china-in-revolt>>.
- Feng, Chen and Xuehui Yang. “Movement-oriented Labour NGOs in South China: Exit with Voice and Displaced Unionism.” *China Information* 31.2 (2017): 155-75.
- Free Chinese Labour Activists Now* 馬上釋放中國勞權人士 . 5. Dec. 2015  
 <<https://www.facebook.com/freechineselabouractivists/>>.
- Global Support for Disappeared Left Activists in China*. 21. Nov. 2018  
 <<https://www.facebook.com/pg/supportjasicworkers>>.
- Howell, Jude and Tim Pringle. “Shades of Authoritarianism and State - Labour Relations in China.”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7.2 (2019): 223-46.
- Labor Notes. “*The Jasic Workers’ Struggle in China*” November 05, 2018  
 <<https://labornotes.org/jasic>>.
- Lee, Ching Kwan. *Against the Law: Labor Protests in China’s Rustbelt and Sunbelt*.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2007.
- Qian, Ben-li. “Jasic Struggle: Debate Among Chinese Maoists.” *Solidarity*. May-June 2019  
 <<https://solidarity-us.org/atc/200/chinese-maoists-debate>>.

Solidarity With Chinese Workers' Struggle. "Workers in a Workers' State." *JACOBIN* 2016. 1. 15  
<<https://www.jacobinmag.com/2016/01/china-strikes-unions-labor-protest-repression-communist-party>>.

Yuan, Yang. "Inside China's crackdown on young Marxists." *Financial Times* 14 February. 2019.  
懷火. 「對話陳敬慈：佳士運動與進廠學生應重新調整步伐」. 『懷火:思想與運動交匯處』.  
2019年5月30日  
<<https://www.reignitepress.com/post/對話陳敬慈：佳士運動和進廠學生應重新調整步伐>>.

林非. 「習時代的「改革」是什麼？－改革開放40週年紀念講話關鍵字分析」. 『端傳媒』.  
2018年 12月 20日  
<<https://theinitium.com/article/20181220-opinion-40-years-of-reform-context-analyse>>.

<凶年之畔>(We the Workers). 黃文海 감독. 2017.

■ Abstract

## China's Suppression of the Labour Movement and Aspects of Resistance in the Xi Jinping Era

Ha, Nam Suk

University of Seoul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reintegration into global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China's state-labour relations. The urban work unit system and rural collective agriculture of the socialist period were dismantled. Labor has been commercialized and a relatively free labor market has been formed. Thus workers begin to resist against the state and capital to protect their rights and the wide variety of labour relations emerged between workers' resistance and the state's response. To ease the growing number of workers' strikes and resistance in the 2000s, the Chinese authorities implemented policies for social stability, including raising the minimum wage,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and partial permission for labor NGO activities. However, the party-state has concentrated its power to Xi Jinping and tightened control over the entire Chinese society, resulting in a massive crackdown on labor movements. In particular, the "Jasic Incident" which Chi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workers who resisted inhumane treatment and college student activists who joined forces with them, was a typical example of China's state-labour relations that had changed repressively during the Xi Jinping era. Workers and activists have begun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ssential nature of China's socialist system, criticizing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socialist state oppresses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stance of workers and activists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authorities and

China's changing state-labour relations in the Xi Jinping era.

Key words: China, State-Labour Relations, Labour Movement, Labour NGO, Jasic Incident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3일